



# 한경 BUSINESS



36년 만에 M&A 나선 대신증권 속사정  
한 번에 24% 수익률 올린 발품의 위력  
변동성 큰 증시의 새 희망 '자산주'

## 한국의 젊은 슈퍼리치들



### '고시 합격 5명' 송가네의 특별한 공부법

세계 최강 워싱턴의 지식 생태계 밀착 취재  
채규철 회장 오디오에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이유  
200년 역사 자랑하는 듀폰의 혁신 노하우



값 3,500원



러시아 자본시장

# 해외 IPO 본격화...아시아 시장에 큰 관심

〈기업공개〉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 변호사

**최**근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로 글로벌 기업들이 본점 소재지 국가의 증권거래소를 통해 기업공개(IPO)를 할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거래소를 통해 활발하게 IPO를 실시하는 추세다.

러, 러시아 포털 사이트 '메일랏루(Mail.ru)'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57억1000만 달러의 기업공개를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 업체 '안텍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구글(2004년 당시 17억 달러)에 이어 13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러시아 기업들이 외국 증권거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사진은 러시아 증권거래소.

## 한국 상장 기대...민·관 협력해 전략 수립해야

이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러시아 기업들이 외국 증권거래소를 통한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다. 러시아 자본시장(특히 RTC 거래소와 MICEX 거래소) 발달이 더딘데다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가 많지 않아 러시아 기업들이 선진국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브릭스(BRICs) 국가에서 올해 총 640억 달러 규모의 IPO가 예상됐는데 브라질과 인도 시장이 악화되면서 브라질과 인도의 IPO 규모가 각각 29%, 74% 급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16% 증가한 3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러시아 산업은 에너지·원자재·금융 관련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보통신 기업 등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외국 기업은 각각 5개, 14개다. 현재 외국 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전체 상장회사 수의 1% 정도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거래소가 포천(Fortune) 선정 100대 기업을 포함해 우량 외국 기업을 국내에 상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 상장된 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아직 러시아 자본시장의 규제·인프라 등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러시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수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우량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 증권거래소 상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중국 고섬 사태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절차를 강화할 조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나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외면할 수 없어 우량 외국 기업을 유치·상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러시아 기업들은 주로 유럽 및 미국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유치해 왔는데, 요즘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구체적인 전략과 액션플랜을 세워 러시아 시장에 접근한다면 우량 러시아 기업들의 국내 상장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러시아 기업들 가운데 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검토 중인 기업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업체 'UC루살'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22억4000만 달